

한국노총이 실시한 〈기혼 여성노동자 탁아실태 조사〉

월소득의 30%를 보육비로 과부담

63%가 육아문제를 제일 심각한 장애로 지적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75.5%가 여전히 '자녀양육문제'로 큰 장애를 겪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관계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63.6%를 차지, 직장 탁아의 확대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사업장 규모가 1천명 이상보다는 1천명 미만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1천명 이상이 사업장에만 직장 탁아를 설치하도록' 입법예고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연례행사로 치르는 제26회 여성 노동의 평등과 인권보장 강조기간을 맞아 29일 개최한 〈91년도 전국 여성노동자대회〉를 기념한 〈기혼 여성노동자 탁아실태 조사〉 결과로 주목을 끈다. 한국노총 여성국이 취학전 자녀를 가진 노총산하 금속·섬유·고무·화학의 생산직종사자와 철도·체신·금융·병원·통신·관광의 사무, 판매·의료직종사자 등 총34개 사업장 5백48명을 대상으로 4월 1일~20일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백5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직장탁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조사결과에는 조사 대상자의 33.2%만이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66.5%의 기혼 여성 근로자는 1천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1백명~3백명 미만 사업장에는 22.9%, 1백명 미만 19.3%, 5백명~1천명 미만 17.6%, 3백명~5



백명 미만 6.7% 순으로 1천명 미만 사업장 규모가 훨씬 많다.

또 기혼 여성 노동자들은 자녀양육문제 56.4%, 임금부족 25.9%, 승진 가능성 결여 23.8%, 가사부담 19.5%순으로 직장생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자녀양육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52.0%) '자녀보육비가 부담스럽다'(11.6%)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 노동자들의 월보육비는 15만원 이상이 36.2%, 10~15만원 미만 18.2%, 6~10만원

미만 31.0%, 4만원 이하 14.8%에 이르러 대부분 월 평균 소득의 1/3 이상을 보육비로 '과부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57.5%가 1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낳는 직장 탁아 확대,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탁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직장에 같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크고 보육비 부담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육비 부담이 더 적은 국공립탁아소의 확대는 물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나 △노조활동을 통한 단체 협약으로 직장 탁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